

# Issue Comment

- ✓ 현대상선이 국내 조선사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계획중
- ✓ 수주하는 조선사 위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
- ✓ 글로벌 해운사로부터의 수주가 아니라는 점은 아쉬움

## 현대상선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는 조선사에 호재

4월 10일 현대상선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 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월 5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서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20 척을 포함해 총 60 척 가량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해운 업계가 빠르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이와 같은 선박 발주 소식은 조선사에 호재다. 아직 수주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하기는 이르고, 수주 선사 윤곽이 나오면 해당 조선사를 위주로 강세를 보일 개연성이 있다. 물론 글로벌 해운사가 발주한 물량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다. 대한민국 조선사는 작년 8월 CMA CGM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물량을 중국 조선사가 수주한 이후로 글로벌 컨테이너 건조 시장에서 입지가 흔들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주 회복이 예상보다 더더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신조 발주를 지원해주는 분위기는 당장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일부

### 현대상선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 예정

#### [2]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

#### 현대상선 '3조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20 척 발주 착수

운송 원가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에도 대비가 가능한 **고효율, 친환경 선박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필수 해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① 먼저, 올해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 보증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중소선사의 벌크선박 140 척 이상을 포함하여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벌크 140 척 이상 / 컨테이너 60 척 이상(**초대형 컨테이너선 20 척 포함**)

현대상선이 **3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20 척 발주 작업에 착수**했다. 현대상선은 10일 "최근 선가 상승, 조선소 도크 확보 등 상황을 고려해 **국내 조선사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제안요청서(RFP)를 곧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이날 국내 조선소 '빅3'로 불리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 RFP를 보내 조선소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대상선은 그동안 2020년까지 **22,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확보해 아시아~북유럽 노선에 투입하고, **14,000TEU급 8척**을 미주 동안 노선에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해왔다.

자료 : 해양수산부, SK 증권

자료 : 연합뉴스,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